

# 여수·순천·광양 조정지역 지정 해제

주택가격 상승률 등 요건 충족  
내일부터 효력 발동…규제 풀려  
경제·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여수·순천·광양 3개 시가 2020년 12월 지정 됐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지역경제와 분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부장관이 최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전남 동부 3개 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게 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 원 이하 50%), 세제 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 강화(청약통장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과 열양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3개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

택 인허가 및 공급 시기 조절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정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5일부터 발생하며, 그동안 끊어있던 주택담보대출과 전매제한, 2주택 이상 취득세 종과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열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관 광양시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 경제와 분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동현 기자



동광양농협이 최근 위더스상을 수상했다.

## 동광양농협, NH손해보험 ‘위더스상’

NH농협 손해보험 전남총국(총국장 이재철)은 동광양농협(조합장 이명기)이 최근 위더스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위더스(With-us)상은 농협손해보험이 농축산업 발전과 지역사회 농업인의 건강과 재산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성장 가능한 농축협을 육성 지원하는 상으로 관내 농축협중에 동광양농협이 손해보험 사업 추진에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자리에는 NH농협손해보험 흥순광 부사장, 임성재 농협광양시지부장, 이재철 NH농협

손해보험 전남총국장 등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NH농협 손해보험 흥순광 부사장은 “코로나 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손해보험 추진을 통해 농업인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해 줬던 동광양농협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으며, 이명기 조합장은 “농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내실 있는 성장과 조합원 실의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성진 기자

구례군이 2019년부터 안전 먹거리 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콩 재배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 나가고 있다.

구례군은 친환경 콩 재배면적 30㏊를 목표로 콩 종자 확보와 기계화율 향상에 주력해 정부 보급종자의 공급을 확대 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구례군은 올해 군비 7,100만 원을 투입해 친환경 콩 종자, 생분해성 멀칭필름, 친환경 약제를 지원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으로는 비닐 피복기, 파종기, 수확용 콤바인을 대여해 주고 있다.

/구례=손석봉 기자

## 공영민 고흥군수 취임에 부쳐

### 기자수첩



진종언

고흥지역 담당 국장

군민 화합의 기본적 원리는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공정이다. 둘 중 하나만 깨져도 불신과 갈등 해소는 어려워진다.

역대 고흥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세력싸움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지역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지각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행한 결과들로 편 가르기는 극에 달했다.

당시 세 싸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공개적 군민 갈라치기라며 부정적 의견이 다수 표출된 바 있다. 모든 일은 결자해지다. 많은 군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이합집산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잇속을 쟁기기 위해 약삭빠르게 단물만 뱉어먹는 박쥐꾼들의 변신, 태양광 등 각종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한 빅딜설’ 등에 대한 대립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있다.

고흥군민은 이제 화합해야 한다. 그 화합 속에서 따뜻하고 행복해야 한다. 앞으로 고흥의 현재와 미래는 오롯이 공군수의 몫이며, 그의 실천력에 달려 있다.

군정을 펼치는 데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얹매이지 않고 소신껏 주변 관리를 하면서,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지역사회 화합을 잘 이끌어낸다면 군민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고흥군을 위한 민선 8기 공영민호의 순행을 기대한다.

## 순천, 부동산증개업소 표시·광고 위반 단속

### 거래완료 후 방지 허위매물

###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표시·광고 행위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도 표시 광고에 적용된다.

또한 개업공인증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일반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할 수 없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공인증개사의 성명과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추가 명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는 허위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중개업소 전제에 문자 발송 및 안내문 배포 등 법령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지도 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 곡성 삼기면, 생명사랑 마을 선정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명사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삼기면을 ‘생명사랑마을’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센터는 최근 삼기면을 찾아 26개 마을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은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자살을 암시하는 신호를 알아차리게 함으로써 사전에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에 참여한 조추훈 삼기면 이장 단장은 “마을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앞장서겠다”며 “게이트키퍼가 되어 의미 있는 사업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곡성=한정길 기자



### 순천제일대, 이미지메이킹 프로그램

순천제일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최근 여대생 특화 프로그램의 하나로 ‘성공취업을 위한 프리패스 신박한 이미지메이킹’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별 퍼스널 컬러 진단 ▲맞춤 메이크업·헤어 시연 ·실전 면접 메이크업에 대한 이해 ▲면접에 적합한 이미지 연출 및 면접 태도·자세·인사 표정 연습 등으로 진

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보건의료행정과 한 학생은 “병원 실습 및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고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와 눈썹 모양 등 면접 시 주의해야 할 이미지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 보성경찰, 모범운전자 간담회

보성경찰서가 최근 보경마루에서 보성 모범운전자 35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준 모범운전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교통시설물 및 교통안전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교통신호 및 제한 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소개했다.

오임관 보성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회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반영해 안전한 보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보성=백종우 기자